

Holiday

형은 빨간색 지붕을 찾으라고 했다. 그 위로는 작은 벚꽃들을 뭉친 굴뚝새 동지가 있다고 했다. 등글게 패인 등성이 안으로 공동주택단지가 탄 누룽지 마냥 다닥다닥 눌러 붙어 있다. 굴삭기 돌아가는 소리가 확성기 마냥 앵앵거렸다. 터미널 가까이 탄광들이 밀집해 있는 것일까. 매캐한 연기들이 뿜졌다. 목안이 칼칼해져서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해봤지만 시원찮았다. 터미널 간판은 받침대가 일그러져 위태롭다. 지난 여름 이곳도 장마가 해살 놓고 간 것일까. 어쩌면 그 전 해이거나 그 전전 해 인지도 모른다. 정물같은 풍광은 탄광에서 날아오는 드르륵대는 소리와 부딪힌다. 매표소 여직원은 시간의 벽 속에 갇혀 있다. 오늘 그녀는 몇 장 팔지 못하고 쌓여있는 표 등치만큼 무료했을 것이다. 되풀이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는 만큼이나 좋을 이유도 없는 법이다. 기실 쇠락해가는 탄광 마을 터미널은 단조롭다. 똑같은 얼굴로 나대는 곳에서 귀밀을 덤수룩하게 덮은 머리와 그 사이로 언뜻 비치는 오른쪽 귀걸이와 구경 15센티미터의 카메라렌즈는 괜찮은 구경거리인 셈이다. 그녀는 나의 실루엣을 그린다. 나는 그 안에 함초롬한 모습으로 서 있다. 돌아보았다. 흠칫 놀란 듯 그녀는 다시 황망스럽게 눈길을 거두어들였다.

나는 매표 창구로 다가갔다. 십자로 구멍 난 플라스틱 유리판만이 경계 짓는다.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다. 강후락이라고... 여기 산 지 꽤 될 텐데요. 그녀는 그제서야 강씨 아저씨의 친구인가 보다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 머리맡으로 어지럽게 널린 상상들이 허공을 제멋대로 날았다. 밖으로 난 길을 따라가세요. 빨간 지붕은 그 집 뿐이에요. 뒤끝을 살짝 올리는 강원도 억양은 냉랭하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밍살스럽지만 녹두떡처럼 도톰한 어깨를 문대고 싶은 마음이 동했다. 뭐 이런 객기는 탓할게 못된다. 남자에게 타지의 여인은 바람 혹은 유혹. 바람은 잔잔하다, 바람이라...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늦봄 강원도에 불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나는 돌개바람이라고 썼다. 다음 날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불렀다. 네가 무슨 바람개비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나는 공책에 불펜 자국을 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일어나 뛰쳐나가 버릴까? 배짱은 솟아 주질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두드려대는 책상소리보다 더 크게 공명한다. 슬픈 기억의 유희. 나는 작고 가냘픈 뒷모습을 떠올리며 웃는다. 14살짜리 서울 촌놈에게 강원도는 지식 속에서나 존재하는 공간이었으니 높새든 돌개든 그게 그거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 박제된 지식이 내 머리카락에 날리고 발길에 채인다. 오감으로 확인하는 자연의 경이.

이쯤에서 이 여행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야겠다. 아침 나절에 나는 묵은 잉크를 먹은, 일월 이십 칠일이란 날짜를 박은 영장을 받았다. 따져보면 스물 넷이 적은 나이도 아닌데. 떠나고 싶은 충동이 치민 것은 새삼스러울 일이 못된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것만큼 노골적으로 나란 놈을 설명하는 말을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제련된 새장 속의 새는 처음부터 날고 싶은 욕망을 거세당한다. 태생부터 고통이나 번민을 심연 속에서 캐낼 필요가 없는. 내가 그런 1999년 11월 2일 징집영장을 받았고, 난생 처음 낯선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단지 그것이 머리로부터 굴러 나와 다리를 밀어낸 것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여기에 온 이유의 전부다. 카메라는 여름 내내 패스트푸드 점에서 햄버거용 빵을 굽고 장만했다. 군대를 다녀오면 다시 사진학과로 편입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카메라부터 털컹 사버린 것이다. 뭐 처음부터 사복으로 올 요량은 아니었다. 마음을 정한 것이라곤 애당초 없는 여행이었으니, 저 무정형의 시간을 따라 흘러가 보자는 심사였다. 매표소 앞에서 언젠가 과 선배 영훈 형이 말했던 고교 동창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었을까. 어젯밤에 본 비디오 엔딩 타일지도 모른다. 박중훈이 안성기와 질퍽한 탄광 레일 위에서 뒹굴던 모습이란, 흑비는 가슴팍을 때렸다. 빗방울 마저 살려낸 화면에 뜻 모를 욕심이 났다. 그래서 엮은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수수한 산비탈 하나 없는 사복 행을 택했겠는가. 그것이 영훈 형의 이야기를 불러낸 것뿐이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나는 소주 세 병을 털었다. 앞에 앉은 영훈 형은 말없이 술잔을 엮었다. 너 같은 놈을 알아. 점심에 반주를 훌쩍이고, 수업이면 코를 골던. 손재주가 비상하더니. 그 자식 광부가 됐다. 3년 전 일이다. 세월은 때로 지나간 자리를 남겨둔다. 희귀한 이름 탓이었을까. 나와는 다른 선택에 대한 알팍한 호기심이었을까. 나는 그 형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탑승구 맞은편 공중 전화 부스로 뛰었다. 손길에 닿고 떨어진 전화번호부 사복 편에 형의 이름이 말도 없이 앉아 있다. 지난 3년간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영훈 형 친구가 틀림없는 게라고 이리 저리

계산을 대본 터였다. 푸우 푸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영훈이라고 아시는지요. 친구 녀석 중에 있긴 합니다만. 영훈 형 후배인데 다름이 아니라.

형은 흔쾌히 승낙했다. 누추하지만 식솔 하루 늘리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고 했다. 나는 저녁이 되기 전에 도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섯 시간을 넘게 꾸물거리는 둔덕을 타고 돌았고, 버스에 뺨 녹녹한 냄새가 지루해질 때쯤 터미널에 내린 것이다.

그저 나는 작품이 될 것이 없나 하고 둘러보았다. 재빨리 사진기를 꺼냈다. 어둠에 조금씩 먹혀 드는 회색 하늘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이 더딘 손놀림을 앞서 나가는 통에 애가 탔다. 초점을 맞춰가며 바닥에 뺨 짙은 석탄 자국들을 이리저리 뒤쫓았다. 사물들이 프레임 속에 들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무장화 행렬, 이제는 멈춰 선 선로, 유리창에 흐릿하게 번진 백열등. 향량했다. 나는 이른 어둠에 쫓겨 달렸다. 형사가 그랬던 것처럼. 운동화 끈을 조이고 어둑해지는 도로를 따라. 선과 악은 어느 순간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도 보았을까. 명료한 경계는 어둠 앞에 쓸쓸히 잦아든다는 것을. 살인과 물고 물리는 혈투. 그 속에 스미는 짜릿함. 그리고 솟는 아슬한 연민. 그것은 어느 겨울 산골 탄광에서 살아나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일러준 대로 빨간 지붕은 그 집 하나였다. 지붕 두께만큼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줄을 대 간이로 만든 벨을 눌렀다. 쇠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는 다가섰다. 형은 고향이 마산이고 내년이면 서른이 되고 하청일을 하는 광부일 것이다. 더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술에 절어 뇌까리던 영훈 형의 말은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나 또한 취해 있었다. 고등학교 짝이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형이 열어준 대문은 작았다. 서울서 여까지 꽤 멀재. 그의 낮고 낮은 목소리는 독특한 억양을 탄다. 두운에 실린 강세는 남쪽 바닷가 냄새가 났다. 형은 영훈 형과 소식이 끊긴 지 이년이 넘었다고 했다. 흥분을 잘하는 영훈 형과 녀석 좋아 보이는 후락이 형이 무슨 조화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형이 궁금해 하는 눈치여서 몇가지 영훈 형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작년 가을에 코스모스 졸업장을 탔고 다음달 한양 증권에 덜컥 붙었다고. 내년엔 툭툭 대거리를 하던 동기 영은이 누나와 결혼을 하는 모양이라고도.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 주위가 씩룩이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를 뒤덮은 쓸쓸함이 곧 비를 내릴 것 같아 나는 그만 머쓱해서 동네가 아담하다고 슬며시 화제를 돌려보았다.

인자 사람들도 별로 안 산다 아이가. 다들 떠나더라. 남은 사람들도 그렇고. 말로야 사복 흠에 문힐끼라 노인네들 고집을 부리사도 오데 그제 인력으로 되는 일이가. 여도 내 후년이모 재개발되거든.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선다 안카나. 탄광밥 묵는 우리야 있으므로 걸리적거리기나 한 게 지 발로 안 나가모 쫓기 나는 거 밖에 더 하겠나.

뒤쳐지는 것은 그림자가 없다. 석탄이 석유로 대체되고 사복이 쇠퇴하듯이 밀려나는 모뎀 것은 그저 그렇게 잊혀지는게 마지막 소임이다. 형 목소리는 사멸하는 노을 마냥 흐릿하다. 먼지의 집에는 형 말고도 경녀 씨와 네 살 된 딸 은지가 살고 있다. 단출한 15 평짜리 슬레이트 건물은 형이 다니는 영흥기업의 사택이라고 했다. 하청일을 하는 임시직이라 형은 별이가 시원찮은 모양이었다. 사복에 자리를 튼 게 햇수로 3년인데도 보금자리 마련할 돈도 못 모은 눈치였다. 경녀씨는 서울서 왔으니 강원도 통감자 맛부터 봐야하지 않겠냐며 도톰한 알감자를 꺼내 왔다. 밥통에 함께 넣었는지 가장자리에 흰쌀들이 밍살스럽게 붙었다. 그래도 입이 근질거리고 근침이 도았다. 젓가락으로 헤쳐 신김치 한 쪽을 찢어 엮는데 경녀 씨는 은근히 형의 속을 들쑤신다.

집이 이래서 어떡해요.

와, 이기 어때서. 탄광밥 묵는 집이 다 글치.

당신 식구들한테도 좀 그렇게 당당해져 봐.

...

한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직장을 잡아야지. 여기야 이제 오늘내일 하는 곳인데.

서로 실눈을 흘기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한 티격뎐은 조금씩 엇나갔다. 여자들이란 하나같이 아파트단지에서 적당한 시간에 퇴근한 남편을 대동하고 대형할인매장을 들르는 편안을 꿈꾼다. 그 편안을 위해 치러진 온갖 모멸과 치열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씀씀이란. 물론 경녀 씨가 형의 고달픈 석탄쟁이 노릇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녀 또한 광부의 딸이 아닌가. 허나 아낙들의 갈망은 도시나 열촌이나 매한가지다.

환경이나 심성 탓에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가족을 건사할 책임에 눌러 사는 남편 속내를 몰라주는 경녀 씨가 야속했다.

손님 와 있는데 고만해라. 사진찍는다 그랬재? 요 동네야 온통 탄구리뼈 안날리는데 뭐를 찍는다카는지 모르겠다. 내가 소개해주고 그라도 좋겠다만 요새 워낙 불경기라서. 하루 쉬는게 눈치가 보인다.

강씨, 강씨 집에 있는가?

서울 손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신경이 자꾸 거슬리는 듯 형은 이리저리 시간을 변통해 보았다. 뜨내기 생활은 사람을 몽돌처럼 닳게 한다더니, 형의 심성은 영훈 형이 말한 그대로였다 형이 난감한 시간 쪼개기를 하는 동안 바람 든 모자를 때 나는 그 퍼석이는 소리같은 것이 창을 뚫었다. 창출이 아저씨 목소리데, 형은 재빨리 일어서 미닫이 문을 밀었다. 그 틈새로 칙칙하고 검붉은 얼굴 가족이 보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60대 후반은 족히 되 보이는 그 아저씨는 이제 예순이라고 했고, 형과 한 조를 이루는 직영광부라고 했다.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에?

영흥기업이 문을 닫는 단다. 그란디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 밖에 안 준다더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안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에. 3개월치라 해봐야 3백만원도 안되는게 개우 그거 받으라꼬 탄밥 먹었습니까. 그라고 내는 잘 모릅시다마는 법으로도 그거는 안되는 소리깁니다. 안글나? 니는 대학도 다녔께네 잘 알겠다.

형은 아저씨가 또 어디서 괜한 소리를 듣고 왔나보다는 눈치였다. 행여 사실이라 해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삶의 지난함이란 겪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바닥을 푹푹 누르고 있는 형의 손가락이 슬프다.

찾아오는 손님이 없더만.

서울서 학교 다닌 친구놈 후밴디 잠깐 묵는다 케서 오라고 안했습니까. 승우야 인사드리라. 내랑 같이 일하는 창출이 아재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서 대학 다닌다고? 마침 잘 됐다. 내일 가서 따질 건 따져 봐야 될 긴데 도움 좀 받으면 되겠네. 우리사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다닌다면 무슨 천재인 양 지켜세우고 본다. 하지만 나아 선물거래나 팔레토 원칙 같은 기본도 못 깨우친 열등생이 아니겠는가. 순간 당황했다. 형의 뚫은 눈빛이 애잔하다. 나는 잠깐 아득해졌다. 형은 눈만 깜벅거렸다. 결눈질로 내 얼굴을 살피는 형은 여태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잠깐의 휴지를 두고 그러마고 했다. 입대까지는 석달 여쭙 남았으니 사진은 며칠 쯤 미뤄도 될 성 싶었다. 술 남은 거 없나? 형은 이런 날은 한 잔 해야 잠이 온다며 경녀씨를 재촉했다. 입술을 이빨로 깨물던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낭패감이 휘젓고 간 그녀의 얼굴은 희부영다. 가외한 마음, 그녀라고 왜 없겠는가.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당신은... 문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다. 경녀씨의 목소리는 그 바람을 타고 떨리다 부서진다. 그 울려퍼진 기운이 내 동맥을 타고 퍼진다. 하나 둘 더나가지만, 또 더나가겠지만, 그녀도 겨울은 나고 싶었을 것이다. 짐짓 목소리를 높여 무안함을 감추려는 형은 외출을 타는 뺨에로 눈동자처럼 비루하다.

아무리 탄광이 돈벌이가 안 되도 글치 이렇게 광부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폐광해도 되는 기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디. 하기사 영광쪽에는 벌써 세겐가 닫았다고 하더마는.

조합이나 노조가 없습니까?

회사마다는 없고 다 같이 모다서 하나 맹글기는 했는데 뭐 거기서 별로 하는 일도 없다. 우리야 뭐 텔레비에 나와서 파업하는 사람들메이로 단합이 잘 되는 것도 아이고.

인자 나는 건너 갈란다. 내일 회사로 나오거라.

창출이 아저씨는 구닥다리 토박이지만 눈치는 빨랐다. 걸로야 천연덕스럽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잊지만 형이 흘쩍이는 경녀 씨의 어깨쪽으로 더듬이를 돌려놓고 있다는 것은 피차 알고 있는 터였다. 몇번 형이 소맷자락을 끌었지만 창출이 아저씨는 기어코 돌아가겠다고 했다. 나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만 자야겠다고 피곤한

시늬를 해보았다. 이번에는 창출이 아저씨한테마냥 인사치레를 건네지 않았다. 문간방에 재워서 어찌누 하고 다시 한 번 시원찮은 대접에 미안함만 표시하며 그만 들어가도 좋다는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문간방은 마루보다 천장이 낮다. 좁은 부엌에서 밀려난 건어물들이 벽쪽으로 널려 있고 가구라고는 서랍장 하나만 달랑 놓여있다. 허전하다. 뭐랄까. 사랑니를 뽑고 난 시림같은 것. 버스에서 선잠이나마 눈을 좀 붙여서인지 마루를 사이에 두고 가난한 부부의 대화가 겨울 찬바람을 타고 문지방을 넘어서인지 연유를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나는 한동안 뒤적였다. 대뜸 돕겠다고는 했지만 폐쇄가 사실이라면 임시직인 형에게 별 뽕족한 수가 없으리라. 알아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아침은 빠릴 왔다. 형은 아까부터 방문 앞을 서성였다. 나는 두평 남짓한 방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문간방 앞은 벽 틈새로 흥건한 습기가 났다. 밤새 비가 내린 모양이다. 머리맡에 넣어놓은 무말랭이. 짧은 햇빛에 말려서 들어놓은 저녁 찬거리는 다시 물을 먹고 시들해졌다. 햇잠으로 시간만 축낸 탓인지 뒷머리에 우직하니 통증이 왔다. 그래도 얼마간 괴롭히다 사그라들 육신의 불편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경녀씨 얼굴은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말간 흰밥 위로 그녀의 눈썹이 흔들린다. 저 여인을 죄어드는 대상은 무엇일까. 형은 또 몇 번을 돌아 누웠을까. 아이는 기억에 새기려는 듯 벽에다 크레용 장난을 하고 있다. 끈을 놓쳐 모래주머니를 쏟았는지, 손가락질 하는 형의 까칠한 손은 힘이 없다. 나는 까닭없이 서러워졌다. 꾸역꾸역 밀어넣지만 반도 못 먹고 손가락을 놓았다. 그녀가 찬거리가 변변찮은 탓이라고 여길 것이 미안했지만 더 먹다간 영락없이 채할 것 같다.

영흥기업에는 벌써 후락이 형 형색과 비슷한 몇몇이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다. 나는 밤새 폐광 소식이 마을에 퍼진 것을 알았다. 영흥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제시한 퇴직금과 이사 비용은 직영 광부들에게만 지급된다고 했다. 노조와 이미 말이 된 상태였고, 노조위원장도 아침 첫차로 사복을 뗐다고 했다. 막막함에 몇몇은 바닥에 처연히 주저앉았다. 직영 광부들은 그나마 나은 사정이라 다른 이들을 안아 올리고 있었다. 울컥거리는 목을 어찌지 못해 나는 침을 삼켰다. 무엇인가가 참으로 애석하고, 답답했다. 형은 말이 없었다. 차라리 화라도 내라고, 나는 그 쓸쓸한 어깨와 꼭 쥐 손과 무너지는 다리에다대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형은 나지막히 말했다. 그만 가자고. 있어봐야 별 수 있겠냐고.

형은 사는 게 갈수록 탄광굴 같다고 했다. 젖은 목소리는 파르르 났다. 우리는 저벅거리며 들어갔다. 더는 믿지 않아. 접시 닦이로, 쓰레기 수거인으로, 붕어빵 장수로, 더 나쁠 것도 없는 변두리만 돌았는데. 자꾸 바닥으로 가는 기분이야. 몸은 늙는데 이 육신 데일 따듯한 방 하나 없네.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 있을까. 쓸쓸하게 형은 울었다. 서른 문턱까지 죽었던 눈물을 느즈막히, 이제서야. 이내 땀국물이 찌든 소매로 흠쳐냈다. 그것에 빨간 지붕은, 그 위에 부유하는 먼지는, 더는 갈갈한 벚꽃 동지도 흠씬 젖어댄다. 비가 개이면 서쪽부터 구름은 벗어질까. 그 뒤의 맑은 파란색은 정녕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단지 가난한 자가 꿈꾸던 환영 혹은 망상.

경녀씨는 갈때와는 달리 나와보지 않았다. 그녀는 무겁고 황량한 빛소리를 들었을까. 형은 방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나는 문지방에 걸터앉아 카메라 렌즈를 닦았다. 석탄은 모든 피조물들에 가루를 날린다. 내 카메라에도 해가 끼었다. 닦아도 여전했다. 마음이 더 부엌다. 형이 나와 준다면, 고달픈 그리고 우울한 생에 대해. 술 한잔 하며 이야기 할 텐데. 현관 밖에는 은지가 동개 고리를 잡으려고 잔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복슬이는 은지 친구 삼으라고 형이 지난달 장에 사왔다고 했다. 눈이 젖었더라구. 그는 외로운 숨불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일 게다. 녀석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천박한 교태를 부렸을까. 가죽점퍼의 아가씨 품에 안겨간 요크셔 테리어는 또 얼마나 생채기를 남겼나. 등 뒤로 그림자가 철장 끝까지 늘면 위쪽 손잡이테가 닳은 사발에 담겨질 운명. 다시 아침에 먹은 죽거리를 창자에서 밀어 올렸을 테다. 그러나 소리가 채 이루기도 전에 스러지고 형은 얼굴 기름 반질한 사십대 장상꾼의 저녁상에 올려지기엔 복슬이가 너무 말라깽이었다고 했다. 고기 한 번 먹는 것도 별벌하는 당신이 왜 똥개야? 경녀씨는 남정네들이 잡동사니 사들이는 버릇은 죽어도 못고친다고 툭툭거렸다고 했다. 모르긴 몰라도 식객 하나 늘면 돈도 그만큼 더 벌여와야 한다고 채근도 했을 것이다. 이 슬레이트 지붕 살이에 애완견이라니. 영락없는 흰 양복쟁이가 운동화를 신은 꼴이다. 그 주체념음을 형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역지사지 해보건데 형은 필시 그날 그 개장사 앞에서 집 떠난 개 모양 깽깽대던 스물댓으 기억에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던 것이리라. 은지는 아직도 복슬이 꼬리를 잡으려고 뺨을 들고 있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은 꼭 지아버지야. 살아있는 것에 솟는 불가항력인 감정도 빼다 박았다. 은지야. 이거 보고 웃어봐. 삼촌 우리 복슬이도 같이. 어제는 말을 걸어 봐도 못들은 척, 번번히 무안만 주던 은지가 처음으로 대답한다. 렌즈 안에 잡힌 은지의 뺨에는 하얀 버짐꽃이 피어 있다. 더 추워지면 흐드러지겠다. 가난한 집 딸 아니랄까봐 도장을 찍었다고 경녀씨는 침을 탁 뱉어 그 봉오리를 툭툭 꺾었다. 기집애가 추운데 나댄다고 젖은 목소리를 고함을 쳤다. 엄마가 후려친 불기썩게로 스물스물 아픔이 기어 오르는지 은지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해졌다. 그러나 은지는 입을 앙팡스럽게 깨물었다. 입술 사이로 슬쩍 비친 동그랗고 하얀 몽니는 신음소리르르 냈다. 제간에는 터지려는 눈물을 참으려니 서러움이 술잔히 복받치는 게였다. 고 어린 것의 영특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타박을 멈추고 처연히 멀어지고 있다. 엄마, 어디가? 맹돌같은 두발에 속도를 붙여보지만 어머니의 성큼거리는 발걸음은 간격을 자꾸 벌린다. 은지는 이내 포기하고 핵 돌아섰다. 그리고 버짐꽃 핀 볼에 바람을 팽팽히 넣고 콧물을 훑 삼키더니 다시 뺨을 돌았다.

나는 은지 뺨을 따르는데 실증이 났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것은 싫어지는 법이다. 나는 마루로 벌렁 드러누웠다. 마루 형광등이 눈 앞까지 내려왔다. 백색 분광물질에 눈살을 찌푸렸다. 형광등 옆에는 덕지덕지 거미줄이 붙었다. 거미줄에는 까맣고 조그만 것이 바동대고 있다. 보잘 것 없는 것이 살아보겠다는 떨어대는 것이 가엾다. 아마도 경녀씨는 게으르거나 무신경한 여자일 것이다. 천장을 지나 벽을 타고 내려왔다. 사진이었다. 천장과 벽이 수직으로 꺾이는 지점에 걸린, 베니어판을 가장자리에 댄 액자 안에 든 것은. 형은 모래 속에 숨었다. 그곳은 뜨거울 것이다. 탄광일 하는 놈은 어쩔 수 없는 지 어딜 가든 파고들기만 한다. 형, 나와 봐. 사진에다 중얼거리는 것인지, 꿈쩍 안고 틀어박힌 형을 부르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른다. 은지는 형의 배위에 또아리를 틀었다. 사진 속 은지는 지금보다 눈에 띄게 작았다. 세월은 아이들에게만 터를 남긴다. 경녀씨는 오른쪽 어깨부분이 잘려 나갔다. 성의 없이 셔터를 눌렀군. 언제부터인가 사진만 보면 이것저것 잔챙이를 꺾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의 수영복 사이로 능철스럽게 빠져나온 살들은 슬프다. 스물 일곱 치고는 흉물스러운 고난의 자국들이 여인의 몸을 거두어 들었다. 이 조출한 식구는 어느 여름 동해 해수욕장에 갔을 것이다. 나는 오른 발로 왼 뒤꿈치를 밟아 발을 쏙 빼냈다. 왼발은 껌질을 버린 채 기어오르는 누에 같다. 남은 오른쪽은 공중에다 대고 헛발질을 한다. 결국 그것은 토담 너머 마당까지 뿔뿔이를 했다. 귀찮아. 나는 한 번 힐긋 눈길을 주고 잠시 망설이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나는 베니어판 액자로 천천히 다가갔다. 일천구백구십구년 팔월 이일. 촬영일자가 푸르뎅뎅한 하늘 위에 멀둥하니 박혀있다. 서울엔 장대비가 쏟아졌고, ARS 전화로 수입 억 원의 성금이 모였고, 터밋은 이들은 큼큼거리는 담요도 아쉬웠던 날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행복했다. 적어도 십이 곱하기 십오 배울로 확대한 사진 속 그들은 선하게 웃는다.

나는 그냥 저녁도 먹지 않고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경녀씨가 어디론가 가버린 후였고, 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다시 무말랭이가 햇살에 허리를 비틀고 있다. 삼촌 가? 뺨돌기에 지친 은지가 대문 밖에 쪼그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를 기다린다고 했다.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 아빠에게 삼촌 갔다고 말해 줄래? 은지와 눈을 맞추려고 쪼그리고 앉았다. 그럼 사지는? 은지의 짧은 헛소리가 처연하다. 다음에 삼촌이 갖다 줄게.

언제 올 거야?

봄에. 은지야, 그뻘 지붕도 쓸어 내리자. 먼지가 너무 많아 그지?

나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어른이란 얼마나 이기적인가. 적당한 알리바이를 맞추려 돌려대는 큐브놀이. 빨간색 큐브를 한 면 에 다 맞추면 꼭 아래쪽엔 녹색과 노란색이 두 칸씩 섞여 있는. 나는 빨간 쪽만 보여주고 다 맞추었다고 한다. 그러면 은지는 그것을 보고 밑쪽에도 노란색 면과 녹색 면이 맞춰져 있다고 믿어줄 것이다. 아이는 수련 뿌리처럼 통통한 손목을 흔들었다. 텔레토비가 갖고 싶노라고 수줍게 말했다. 다음에 꼭 사오겠다고 약속을 한다. 나는 또 습관처럼 큐브를 돌린다.

십일월 삼일 오후 열한 시 삼 분. 나는 동부 터미널 대합실에 있고, 천장에 걸린 전자판에서는 낮익은 아나운서가 선소리를 내고 있다. 감기에 걸린 모양이다. 그는 주가가 9 백선을 넘었고,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치인 하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예년 기온을 되찾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나는 불박이처럼 서서 뉴스를 들었다. 어느새 그는 다른 뉴스를 읽고 있다. SK 주식회사가 오케이 캐시백을 홍보하기 위해 벌인 '돈벼락 잔치'에서 과천에 사는 주부

조아무개씨가 1억 원을 받는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도준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는 갈색 가디건을 입은 여인을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아이에게 줄 빵을 사려고 제과점에 들른 것 뿐이에요. 단발머리에 약간 마른 그녀는 마흔이거나 그 주변 쯤일 것이다. 나는 그녀를 쏘아본다. 그녀의 흰 목에 푸른 알맹이가 선명하게 대롱거렸다. 사파이어다. 저것을 쪼개면 그날 동해의 바닷물이 쏟아져 내릴까. 결혼하고 처음 간 여행이었다니까. 또 쿡 와서 찌르는 형의 목소리. 나는 희고 탐스런 목에서 그것을 낚아채 선연한 피를 내고 싶다. 고개를 돌려 터미널 출구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었다. 흐물거리던 발길은 집 앞 골목 레코드 가게에서 멈추어 섰다. 평소 같으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창을 두고 이쪽에 서서 저쪽에 있는 ‘라디오 천국’의 은희 누나를 바라본다. 카메라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문을 슬쩍 밀었다. 또 사진 찍으러 갔었니? 누나는 심상히 종이꽃을 접고 있다. 손재주가 없는 모양이라고, 이제는 그만두어야 겠다고, 볼 때마다 멧쩍어 했지만, 오늘도 누나는 그것에 하루를 접은 모양이다.

노래.

이거, 응... Begees의 Holiday야.

항량해.

영화 사운드트랙에 실렸는데, 하나 줄까?

아니.

그 영화 봤어?

응.

마지막에 탄광촌에서 주인공이 범인과 엉겨 싸우는데 이 노래 흐르잖아 아이러니지. 할리데이라니.

그 사람, 재수도 참없지. 거기까지 쫓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커피 마실래?

아니, 나 갈게요. 누나. 이 노래 비오는 날 틀어줄래?

그래 승우야, 근데 그거 기억해?

나는 ‘라디오 천국’에서 일어나와 두 블록을 더해 가로등이 있는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었다. 다시 오른쪽에서 두번째 붉은 벽돌이 하나 돌 물을 머금고 뭉개지더니 이내 신발등으로 후둑 떨어졌다. 나는 쓰늘해진 손을 녹이려고 눈자위를 슬쩍 부본다. 세 식구는 지금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감자껍질을 벗기거나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상엔 무말랭이 무침이 올라왔을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조금의 휴지를 둔 후에 벨을 눌렀다. 연락도 없이 어딜 간 게냐. 어머니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는 형이 일이 생겨서요. 나는 메마른 핑계를 대고 어색한 거리에서 비껴난다. 침대에 엉덩이를 기댄 채 음반을 썬 회백색 끈을 잡아 당겼다. 힘을 둔직히 신자 비닐은 금새 찢겨 나갔다. 낮에 어머니 만났어. 군대 간다며? 선물이야. 누나는 끝내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 넣었다. 첫번째 트랙곡이라고 했다. 리모컨을 무심하게 누르고 누었다. 쓸쓸한 음성은 사방을 덮은 어둠을 벗겨 냈다. 머리로 베개를 부벼보지만, 쉽사리 찢겨 나가지 않는 흔적. 그것은 뇌피질 속에 요란하게 길을 낸다.

1999년 11월 12일. 저녁 노을은 한뼘 더 길어졌다. 그래도 아직은 사복보다 저녁이 늦게 찾아온다. 다음주에 첫눈이 온다고 했다. 뚜우 뚜우. 전화는 목이 신 거위 소리를 냈다. 학생이우? 사진 다 됐는데. 저번에 맡긴 사진을 찾아가도 좋다는 용건이었다. 일주일 만에 대문 너머 한 길 가로 나가 보았다. 해마다 이맘 때면 ‘라디오천국’ 건너편에 좌판을 깔던 붕어빵 아저씨는 통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장사가 더 잘되는 목으로 이사를 간 것일까. 석쇠가 달구어지는 동안 삭은 눈동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워 담던 그가 문득 그리웠다. 행한 자리 위로 흘쩍 자라 담을 넘은 목련가지가 외로움에 추적거린다. 5천원이야. 갈수록 좋아지는 걸. 아저씨는 필름 광고가 박힌 종이봉투를 꺼내으며 녹음기처럼 반복한다. 언젠가 아저씨 가게가 문을 닫았던 날, 건너편 사진관에 맡긴 사실을 알고 나서 붙여진 칭찬이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 찾아온 문제야 학부모를 대하는 선생님 같다는 걸 그는 모른다. 흑백사진은 피사물들을 죽음 속에 가두는 재주를 부린다. 죽어있는 게 좋아요. 왜 사진을 찍냐고 형이 물었을 때 한참을 고민하다 그렇게 나뭇이 대답했다. 그래서 흑백사진만 찍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무채색은 무채색 안에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제대로 나왔나 보려고 꺼낸 사진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고정액의 냄새가 죄다 날아가지 않아 코가 간지러웠다. 싸한 냄새는 뇌세적이다. 매표소 아가씨의

화장품 냄새가 문득 생각났다. 방문 사이로 뻐끔히 나온 형의 등은 고통에 부르르 떨린다. 복슬이를 가리키는 은지의 눈동자엔 난처함이 몽아리치고 있다. 후다닥 광고봉투로 사진을 덮었다. 흔적이 다시 뇌 안쪽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어디가려구?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를 솔솔 풍기던 어머니는 국자를 든 채 마루까지 나오셨다.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가 봐야 할까 봐요. 나는 위커에 끈을 다시 풀며 꾸물거린다. 해는 붉은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 덩달아 어깨로 내려앉는 햇빛은 감질거린다. 오늘은 일기예보가 맞지 않을 것이다. 비가 한차례 지나치겠는걸. 버스는 일주일새 더 가난해졌다. 의자 위로 솟은 거뭇한 산들은 얼추 대여섯 남짓이다. 얼마 못가서 비는 외진 창으로 내려와 모멸차게 얼굴을 부비고 바들땀다. 가지들은 바람 덕에 무겁게 들고있던 열매들을 내려 놓았다. 가벼워진 몸무게로 나무는 겨울을 나기 수월해지겠지. 곤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하한 열매들은 그렇게 풀터미 위에서 썩어 갈테고. 뒤쳐진 것은 그림자가 없다.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물먹은 슬픔들이 나뒹굴고 있다. 끝도 없이 도로는 산허리를 요염하게 휘감고 돌고 버스는 그 위를 곡예타듯 걸어갔다. 파란 케이스를 뒤집어쓴 CD 플레이어를 꺼냈다. 낱바퀴를 타고 오는 1번 트랙이 처량하다.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박중훈도 범인을 잡으로 이 길을 돌았을 것이다. 부질없는 집착이야. 날은 벌써 어두웠다. 은지는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인형을 사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또 큐브놀이를 해야한다. 집앞에 당도해서야 빨간색 면을 다 맞췄는데 형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있다. 지붕보다 더 별경계 영흥기업이란 뽕끼칠이 담벼락에 휘갈겨져 있다. 누구요? 어둠에서 매캐한 음성이 날아왔다. 발자국 소리가 보폭을 좁히더니 죽어가는 한 그림자는 길어졌다. 접니다. 서울서 왔던. 자네구먼. 그 집 식구들 떠났어. 야반도주였지. 창출이 아저씨였다.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앞서 가는 아저씨의 어깨는 윈썸고으로 기운다. 이제는 서른 집도 안남았다고 했다. 이번 겨울엔 떠나는 것 투성이라고 했다. 너무 없는 게 죄지 사람을 좋았느라고 까닭모를 말도 이었다. 아저씨 방은 정갈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치곤 제법 갖춰진 살림이었고 구석길을 피하려 창을 닫는다. 나는 돌아가는 길로 사진을 국전에 출품해 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다시 트랙 1 번을 눌렀다. 동그랗고 납작한 그것이 재빠르게 맴을 돈다. If you're holiday.. it is funny game... 비지스의 축축한 음성은 어느새 은희 누나의 목소리로 변주된다. 너 그거 기억하니? 지강현이라고, 인질극 벌였던. 아마 올림픽이 열렸던 해였을 거야. 이 노래.. 그 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틀어달라고 했었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해. 돈이 참 사람 사소하게 만들어. 은희 누나의 목소리가 쟁쟁이는 동안 나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걷으려 창에 끼인 서리를 닦아냈다.

심사평 (조남현/국문학, 이인성/불문학)

아무래도 새로운 세기에 펼쳐질 문학 마을의 풍경은 꽤 오래동안 쓸쓸해 보일 것만 같다. 20 세기의 막바지를 살고 있는 젊은 대학인들의 문학에 대한 열기가 이처럼 시들한 것을 보면 말이다.

금년도 대학문학상 소설 부문 응모작들은 예년에 비해 그 편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도 기대치에서 상당히 떨어졌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매체가 불리울 문화에 모두가 혹해 있는 것일까, 요컨대 대학생다운 언어의 상상을 통해 치열한 주제 의식이나 과감한 실험 정신을 드러내는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심사를 맡은 우리의 마음도 어두웠다.

우리가 선뜻 「Holiday」(김주옥)를 당선작으로 고른 것은 이 작품이 젊음의 고뇌와 문제 의식을 뚜렷이 구상화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우선, 성장하는 자아와 굳은 사회의 대립적 긴장을 풀어 놓지 않으면서, 이에 걸맞는 적절한 서술 능력을 비교적 탄탄한 문장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미덕을 지니고 있었다. 입대를 앞두고 탄광촌에 가 흑백사진을 찍으며 그 의미를 반추하는 젊은 화자의 시선은 그 카메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구석진 현실 속에서 현실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그곳의 삶을 무채색의 풍경화처럼 잘 포착해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려진 세계는 아직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독창적 세계는 아니었다는 데서 한계를 지닌다. 언젠가 자기만의 언어의 카메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